

◇소매 폐엽 절제술을 이용한 비소세포폐암의 치료후 기대 폐기능 유지에 대한 연구

김진국, 심영목, 김관민, 권오정, 고영민, 강경우

삼성 서울 병원 흉부외과, 호흡기 내과

배경 및 목적 : 폐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전폐적출술을 받을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시행되어 온 소매 폐엽 절제술[sleeve resection of pulmonary lobe[s]]은,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폐암의 완치적 절제술로의 효능이 전폐 적출술에 못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기대하던 바대로 폐기능의 보전만 효과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보다 많은 환자에의 적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에 소매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환자에 있어 기대되던 폐기능의 보전이 이루어졌는지를 관찰하였다.

방법 : 1995년 6월에서 1998년 6월까지 삼성 서울 병원에서 소매 폐엽절제술을 시행받은 21명의 폐암 환자중, 술후 3개월이후에 기관지 내시경 검사, 폐기능 검사 및 폐관류 스캔 검사를 시행 받은 1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 기대치와의 차이를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전례에서 기관지 내시경상 의미있는 기관지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술후 측정치를 토대로 한 실제 수술측 폐기능은 수술전 기대치의 범위내 [$P>0.05$]에 있어 기대되던 폐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 소매 폐엽절제술은 폐암 절제술의 원칙에 있어서나 술후 성적에 있어 전폐 적출술에 비해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폐기능의 보전 효과가 탁월하므로, 폐기능이 제한된 환자뿐 아니라 전폐 적출술의 대상이 되는 모든 환자에서 적용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책임저자:김진국(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발표자:김진국(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